

창간18주년기념

기획특집 수입개방시대 개막, 우리가 살 길은?

수입 개방시대의 양돈정책 방향



유철호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 서론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출범으로 7월부터 냉동돼지고기가 수입개방되면서 돼지고기 시장은 완전 자유화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양돈산업은 수입 돼지고기와 가격과 품질면에서 경쟁해야 하는 냉엄한 시장경제원리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다.

돼지고기 시장개방으로 앞으로 정부는 양돈농가 소득보호를 위한 어떠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시장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돼지고기 최소수입의무

량을 연차적으로 늘어왔다. 앞으로는 오직 관세만이 조정되는데, 자유화 시점에서 관세는 33.5%로 인상되나 이를 다시 2004년 25%에 이를 때까지 매년 균등 인하해 나가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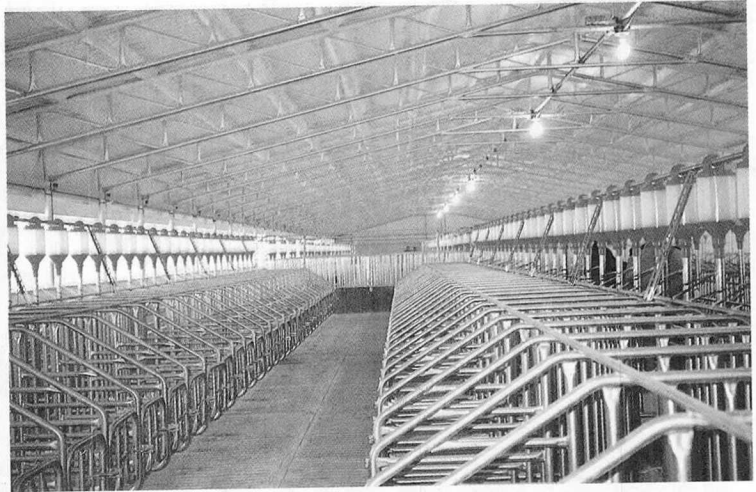
우리나라 양돈업은 생산액의 규모에 있어서는 축산물중 한육우 다음으로 크다(1995년 생산액은 1조4천1백억원, 축산물 생산액의 23.6%). 또한 소비자들은 육류중 돼지고기를 가장 많이 먹어 육류 소비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식육으로서 뿐만 아니라 육가공제품이라 하면 돼지고기 가공품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축산물 수출이라 하면 아직까지는 돼지고기 수출만을 연상케 될 정도이다.

2. 본 론

이 글에서는 시장 자유화에 따라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당면하게 될 여러가지 과제중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 문제점과 정책방향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는 지속적인 생산비 절감과 품질경쟁력 강화대책의 추진이다

최근 양돈의 규모화가 빠르게 진척되면서 전·기업 양돈농장에서의 생산비절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 수입가격에 비하여 국산생산비가 더 높다. 실제 앞으로 수입은 부위별로 이루어질 것이므로 앞다리, 뒷다리와 삼겹살의 수입가격은 국산보다 저렴하여 수입이 일반화될 전망이다. 특히 국내 육가공업계에서는 비싼 국내산을 되도록 기피할 것이다. 근래 소비자들이 냉동육보다는 신선육을 보다 더 선호하여 국내산 돼지고기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국내산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과 계열화업체들이 신선 안전 고육질 등을 내세워 판촉을 강화한 결과 일반 돼지고기보다 고가로 팔리고 있는 점을 감안, 품질경쟁력



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가격경쟁력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의 경우 품질경쟁력에 의하여 상쇄할 수 있는 가격차이의 폭은 그리 크지 않으므로 생산비를 크게 낮추기 위해서는 규모화 등에 더욱 박차를 가하지 않을 수 없으며, 특히 규모화를 제약하는 양돈업 허가제 등과 같은 규제가 철폐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유통개선대책의 강화이다

돼지도축 시설이 전 근대적이고 도축부터 소비자 구매단계까지의 유통과정상 돼지고기가 비위생적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축장시설의 낙후와 작업장

종사자들의 위생처리에 대한 의식결여 문제가 비판을 받아왔다. 이 결과로 도축과정에서 지육의 세균오염 문제로 수출물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유통중 단시일에 변질을 초래할 위험이 높다. 근년 품질경쟁력제고 차원에서 이제까지 일반화되어온 냉동육 유통에서 냉장육 유통과 소비로 전환하여야 된다는 주장이 강도높게 제기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고서는 냉장육 유통은 기대할 수 없다.

유통개선과 관련하여 육질과 부위에 따른 가격차별화 정책의 정착과 소비자들의 육질, 부위, 신선도 등에 대한 구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홍보강화에도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가축질병피해 최소화
와 방역대책 강화이다**

매년 양돈농가들은 가축의 질병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 질병에 감염된 돼지에 대하여서는 약물투여를 하게되므로 육류의 안전성이나 품질고급화 측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소비자들은 돼지고기의 가격과 질 보다도 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질 것이므로 국산 돼지고기가 수입돼지고기보다 더 안전하게 생산 유통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부는 가축방역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고, 양돈농가들도 보다 철저한 질병예방과 사양관리에 힘써야 할 것이다.

특히 구제역 등 해외로부터의 악성 전염병 유입에 대한 대책강화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넷째는 분뇨처리에 대한
지원 확대이다**

양돈에 의한 오염부하가 축종중 가장 크게 부각되고 단속

이 강화되면서 양돈농가들이 분뇨처리시설 설치로 큰 경영상의 어려움에 봉착하여 있고, 보다 저렴한 방법으로 가장 효과적인 가축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개발이 양돈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 왔다. 가축분뇨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또한 이를 유

돼지고기 시장개방으로 앞으로 정부는 양돈농가 소득보호를 위한 어떠한 수입제한 조치를 취할 수가 없게 되었다. 시장자유화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 농산물 협상결과에 따라 1995년부터 돼지고기 최소수입의무량을 연차적으로 늘려왔다. 앞으로는 오직 관세만이 조정되는데, 자유화 시점에서 관세는 33.5%로 인상되나 이를 다시 2004년 25%에 이를 때까지 매년 균등 인하해 나가야 한다.

기질비료로 자원화하기 위한 공동처리장, 축분발효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대폭 늘어나고 있으나 양돈농가 자신들도 생산비절감과 작업환경의 개선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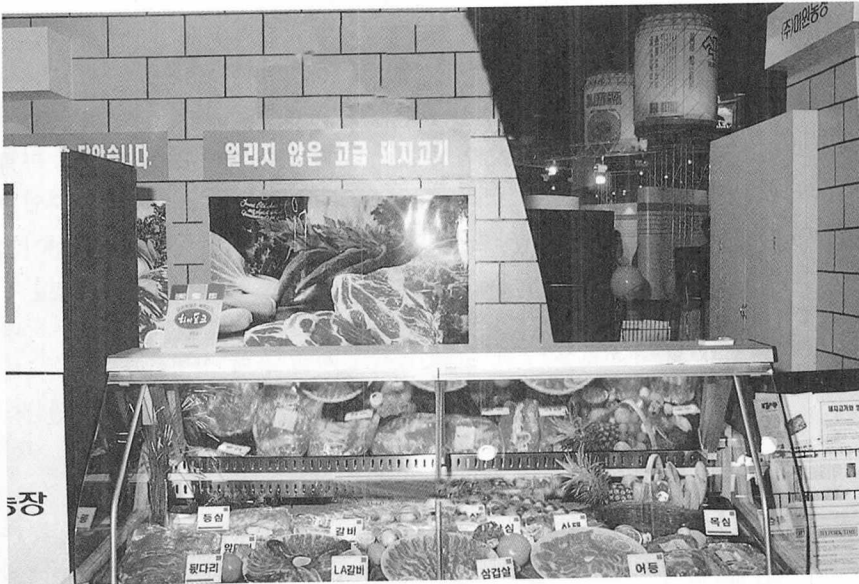
**다섯째는 생산자단체와
계열화 업체 지원 강화이다**

시장개방으로 앞으로 수급조절, 가격안정과 같은 정부 개입은 할 수 없다. 특히 시장이 개방되면 돼지고기 가격이 국제적으로 평준화 되면서 수입가격에 비하여 생산비와 산지가격이 높으며 산지가격 변동이 빈번하고 변동 폭이 크며 국내산과 품질 차별화가 어려운 돼지고기 같은 품목의 생산농가일수록 타격은 클 것이다.

이제까지 소규모 양축가들이 다수 양축을 포기하여 왔으며, 앞으로 냉동 돼지고기의 수입자유화시 이들의 탈락은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농가소득 감소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이다. 이제까지 국내축산물 가격이 큰 폭으로 등락하고 생산비이하로 하락시 정부의 구체적인 가격안정 대책의 미흡에 대하여 상당한 비

판이 가하여져 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이나 경제개발 협력기구 가입 등으로 축산물의 생산, 가격 그리고 농가소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자금의 지원에 있어 과거와 같은 정부의 역할은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생산자단체, 축종별 협회 등 조합원과 회원의 소득



안정과 향상을 위한 사업개발 등 자구적 노력이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 돼지고기의 생산과 직접 연계하여 유통가공 판매 분야를 포괄하는 계열화사업의 발전은 자유화 이후 양돈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계열화 사업의 확충은 사육의 안정과 규모화에 의한 생산비 절감에 크게 기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비자변 확대를 위한 업계의 제품개발, 업체의 자구적인 유통부조리 제거 노력 강화등으로 업계의 발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모하여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축협과 지역양돈조합 등 생산자단체의 주도하에 계열화사

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되어야할 것이다.

여섯째는 수출촉진을 위한 지원강화이다

돼지고기는 오래전부터 축산물 중에서 가장 국제경쟁력이 있어 수출 유망 축산물이라고 알려져 왔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순수입국인 일본이 다른 어느 수출국보다도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나 이러한 유리점을 이용하지 못하여 왔다. 이에 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으나, 작년부턴 수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일본으로의 돼지고기 최대 수출국이던 대만에 구제역 발생함으로써

앞으로 우리나라 돼지고기 수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의 증대는 시장개방에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국내산 돼지고기의 품질고급화와 안정성 제고 등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므로, 수출용 돼지고기의 생산, 가공 및 시장조사등 수출관련 지원이 보

다 현실적인 수준에서 조정되어 수출확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결론

앞으로 돼지고기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우리나라 양돈산업의 나아갈 길을 요약하자면 신선, 안전, 고품질의 돼지고기를 보다 낮은 생산비로 생산하여 안정적인 가격으로 국내소비자들에게 공급하고 더 나아가 수출도 잘 하는 양돈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이상에서 언급한 사항을 중심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보다 구체화되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